

‘우리’를 벗어나게 된다. 우리끼리의 상호 확인과 우리 아닌 사람을 확인시켜 주는 거래말을 풍요하고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거래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모든 일이 조그마한 것에서 비롯된다. □

(이대 교수)

국어의 개발, 그 끊임없는 노력이

鄭 然 燾

國語醇化라는 표현의 文字 그대로의 뜻은 우리 일상의 言語生活 표현에 섞여 있는 非國語의 要素를 除去하여, 국어로 하여금, 우리의 언어 감각에 맞는 그 본래의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자는 일일 것이다. 이는 하나의 理想論일 듯도 하고, 또 다스간의 애국적 동기도 들어 있는, 어려운 명제인 듯하다. 우리의 現實生活은 매우 복잡하고, 多面重層的인 하나의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非國語의인 요소를 모조리 몰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實現不可能한 일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세계의 어떤 言語도 완전히 순수한 自國的 요소만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별없이 외국적 요소를 받아들여, 본래의 체 모습을 잃고, 自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民族의 자존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책도 多樣할 수밖에 없겠으나, 만약 이 문제의 提起가 정당한 것이라면, 더 좋

은 결론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선 각자의 솔직한 의견을 표명하여 보는 것도 무방한 일로 생각된다.

첫째로 떠오르는 현저한 문제는 語彙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 생활은 변화가 빠르고, 文明과 技術의 交流가 急激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새로운 사물들은 그것들이 새롭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시할 어휘가 우리들에게는 미처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를 지시하는 이름까지를 부득이 受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문명과 기술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때에 묻어 들어오는 外國語의 수용 또한 실로 부득이한 形勢일 것이다. 문명과 기술의 수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우리의 것으로 소화 變容되고 그것을 지시하는 이름까지도 우리 말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니, 그 때에야 그 完全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개 번역 불가능한 言語란 없

는 것이고, 우리의 기분에 알맞은 受容이 우리의 바람이라면, 이는 國語의 새로운 개발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순화의 보다 적극적인 의의는 國語의 새로운 개발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국어가 우리의 현실 생활의 利器로서 충분히 편리하고, 충분히 有餘하다면, 外來要素의 유입은 일시적이거나, 극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 요소의 유입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틈타는 것이니, 국어 교육의 강화가 곧 그 根本인 대책의 하나일 것이다.

외래 요소의 유입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던 것과 같이, 그것의 醇化에도 장기간 시일이 요구되리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상적이고 애국적인 熱情에 나뉘어야 없겠지마는, 서둘다 보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부질없는 熱情이 規制와 같은 성질을 띠면, 현실 생활의 자유로움을 害칠 憂慮가 있는 것이다. 국어 순화에 拙速은 禁物인 것이다. 장기적이고도 緻密한 계획하에 끈기 있게 進行시켜 나가야 할 것이 국어 순화일 것이다.

醇화의 현장은 國民學校 教室과 大衆媒體에 두어져야 하고, 그를 위한 준비는 專門機關에서 꾸준히 마련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성 세대의 언어는 그 醇화가 어렵기도 하려니와 그 效果도 거의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언어의 수행적 측면은 거의 習慣의이고, 그 수행 목적은 의사 전달에 충분하기만 하면 그만이니, 그

밖의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을 것이다. 이미 굳어진 中毒狀態와 같은 이들 言語의 교정이란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행하기란 어려울 것이 거의 의심할 수 없는 일이다. 國語醇化가 장구한 계획하에 꾸준히 수행되어야 할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있을 듯하다.

국민학교에 양질의 국어를 集中的으로 공급하고, 大衆媒體가 또한 양질의 국어를 反復하여 傳播하면, 젊은 세대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순화되어 갈 것이니, 대개 공급된 것만이 쓰일 수 있고, 불이 꺼지면 물이 끓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理致일 것이다. 공급 부족 또는 공급원의 不淨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의 목적은 영원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중·고등 학교 및 대학에 있어서의 醇化도 사정은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려운 외국어의 분별없는 過剩 驅使가 자식과 교양의 尺度일 수는 없으며, 외국어 교육의 목적이 외국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楚나라 임금이 가리 허리를 좋아하였더니, 宮中에 굶어 죽은 여자가 많았다고 한다. 윗사람의 행동은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넓은 意味로서의 국어 순화란 일종의 意識化거나 혹은 심리전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事大하는 마음을 功擊하여 자존을 세우는 것이 제 일책이요, 現場의 부득이한 접점은 專門機關이 그때 그때 處方해야 할 일이다. □

(서강대 교수)